

전북도내 체육계 서서히 '기지개'

스포츠클라이밍·테니스 등 이달부터 각종 체육대회 전북체육회관·전북체고서 전문지도자 강습회 열려

강습회는 개인 간의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수별로 나눠 열리며, 참석자들은 전원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또한 제49회 전국소년체육대회와 제101회 전국체육대회 대비 총감독 간담회가 이달 중 예정 돼 있고, 신나는 주말체육학교와 학교체육시설개방지원 사업설명회 등도 개최 된다.

전국 또는 도내 규모의 체육대회도 열린다. 스포츠클라이밍 대회, 도지사기 시군대학 테니스대회와 도지사배 연합라이딩, 도지사배 파크골프대회, 전북도지사배 태권도대회 등이 열린다.

추후 일정은 코로나19 확산 우려에 따라 변동되거나 취소될 수도 있다.

유인탁 사무처장은 "코로나19로 중단됐던 각종 행사 등이 이달부터 서서히 진행 될 예정이다"며 "소독과 방역을 철저히 하고 마스크 착용 등 참석자들이 방역수칙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코로나19로 위축됐던 체육계가 서서히 기지개를 펴고 있다.

1일 전북체육회(회장 정강선)에 따르면 각종 체육대회와 강습회 등이 이달부터 이뤄진다.

먼저 전북체육 전문지도자 강습회가 전북체육회관과 전북체고 등에서 열린다.

이번 강습회에는 체육지도자와 실업팀 지도자 등 120여명이 참여, 김준성 전 대한체육회 체력담당 전문위원 등이 강사로 나서 트레이닝 방법론과 수행력 향상 기법 등의 교육을 진행한다.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하나원큐 K리그1 2020' FC서울-성남FC 경기, 성남 김남일 감독이 선수들에게 작전 지시를 하고 있다.

K리그1, 초반부터 순위 다툼 '치열'

4라운드서 전북현대·울산현대 등 상위권 팀들 '고전' FC서울, 성남FC에 0-1로 패배... 성남, 초반 선전 거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뒤늦게 시동을 건 하나원큐 K리그1 2020이 초반부터 치열한 순위 경쟁으로 팬들의 이목을 끌고 있다. 약수이라도 한 듯 상위권팀들이 고전했던 4라운드의 결과는 순위표의 틈을 더욱 좁혀준 듯하다.

개막 3연승을 질주하던 전북 현대는 강원FC 원정에서 0-1로 달미를 잡았다. 경기 시작 15분 만에 수비수 홍정호의 퇴장으로 수적 열세에 놓인 전북은 후반 들어 공세를 펼쳤으나 첫 패배를 피하지 못했다.

전북의 패배 소식을 접한 뒤 광주FC와 마주한 울산 현대는 1-1 무승부에 그쳤다. 승리시 단독 선두에 오를 수 있었던 기회를 스스로 날렸다.

아직 패배가 없는 것은 반갑지만 부산 아이파크와의 3라운드(1-1 무승부)에 이어 두 경기 연속 승격팀을 상대로 승점 1에 그친 점은 분명 아쉬움이 남는다.

호시탐탐 1위를 바라봤던 FC서울 또한 성남 FC에 0-1로 패했다. 3연승을 바라보던 중 안방에서 무너졌기에 더욱 충격이 컸다.

'현대' 양강과 이들을 추격하던 서울이 주춤하는 동안 알차게 승점을 쌓은 팀들이 빈틈을 파고들었다.

무엇보다 성남(2승2무·승점 8)의 약진이 도드라진다. 김남일 감독이 새롭게 지휘봉을 잡은 성남은 예상을 깨고 초반 선전을 거듭하고 있다.

최용수 감독과 김 감독의 맞대결로 관심을 모았던 서울전을 잡으면서 순위를 3위까지 끌어올렸다. 올 시즌 패배가 없는 팀은 울산과 성남 뿐이다. 조직적인 수비와 적재적소에 터진 득점으로 승점 경쟁에서 재미를 봤다.

지난 시즌 4위를 차지한 포항 스틸러스와 '병수불'로 바람몰이를 하고 있는 강원, K리그2(2부리그) 강등 확정에도 전의를 불태우고 있는 상주 상무(2승1무1패·승점 7)는 울산과 성남에 1점 뒤진 4~6위에 자리하고 있다.

현재 선두 전북과 7위 서울(2승2패·승점 6)의 격차는 3점. 한 경기로 만회 가능한 수치다. 아직 시즌 초반이지만 팬들의 흥미를 자아낼 최소한의 요소는 마련된 셈이다. /뉴시스

전북현대, 신형민 재영입

프로축구 전북 현대가 K리그1(1부리그) 3연패 주역인 미드필더 신형민을 재영입하며 사상 첫 4연패를 위한 순항을 예고했다.

전북은 1일 "지난해 K리그 3연패의 주역으로 활약한 수비형 미드필더 신형민을 다시 영입했다"고 전했다.

신형민은 대인수비와 패스능력이 뛰어나 공수 양면에서 탁월한 능력을 보였다.

그의 합류로 3선을 보강한 전북은 손준호와 함께 공격형과 수비형 미드필더의 안정적인 조합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신형민은 특히 전북의 리그 3연패가 시작된 2017년 주장을 맡았다. K리그 통산 315경기에 출전해 17골 8도움을 기록한 베테랑이다. /뉴시스

맨유에서 리버풀까지... 명문 축구 클럽 역사 '한눈에'

손병하 'FC HISTORY' 출간

50년이라는 국내에서 가장 긴 역사를 지닌 축구전문지 베스트 일레븐의 인기 연재물이었던 'FC HISTORY(저자 손병하)'가 발행했다.

베스트 일레븐은 2015년 4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21개월간 다룬 세계 축구 '명가(名家)'들의 역사 이야기를 2권으로 압축했다.

'FC HISTORY'에서는 총 25개의 세계 명문 축구 클럽들을 소개한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팬을 보유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국제축구연맹(FIFA)과 유럽축구연맹(UEFA)이 선정한 20세기 최고의 클럽 레알 마드리드, '클럽 그 이상의 클럽'이란 모토를 갖고 있는 바르셀로나 등을 두루 만날 수 있다.



유럽 빅 클럽에 국한한 것은 아니다. /뉴시스

'축구의 나라' 브라질에서도 손에 꼽히는 명가 상파울루 FC의 생소한 역사와 현대 축구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수로 불리는 펠레를 배출한 산투스 이야기도 있다.

아르헨티나를 대표하는 명문 클럽이자 라이벌인 보카 주니어스와 리버 플레이트의 치열한 다툼도 접할 수 있다.

총 두 권으로 구성된 FC HISTORY의 1권에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레알 마드리드 등 총 12개 클럽의 이야기가 수록됐다. 2권에는 바르셀로나와 리버풀 등 총 13개 클럽의 이야기가 담겼다.

전국 온·오프 서점에서 만날 수 있으며, 발행처인 베스트 일레븐을 통해서도 구입할 수 있다. 가격은 권당 1만4000원. /뉴시스

여자프로농구 역대 연봉 25명... 평균 8128만원

2020~2021시즌 여자프로농구에서 역대 연봉을 받는 선수는 총 25명이다. 전체 평균 연봉은 8128만원이다.

1일 한국여자농구연맹(WKBL)이 내놓은 2020~2021시즌 선수 등록 결과에 따르면, 박혜진, 김정은(이상 우리은행), 안혜진(BNK), 박지수(KB국민은행)가 연봉 상한선인 3억원을

받았고, 이들을 포함해 총 25명이 역대 연봉자에 이름을 올렸다.

자유계약(FA)으로 우리은행에 잔류한 박혜진은 네 시즌 연속 최고 연봉 자리를 지켰다. 단 일리가 시작된 2007~2008시즌 이후 최다 연속 연봉권이다.

연봉 상한선을 찍은 선수는 지난 시즌 대비 2

명 늘었다. 안혜진, 김정은이 새롭게 추가됐다. 특히 안혜진은 처음으로 3억원을 받게 됐다.

타별 역대 연봉자를 보면 아산 우리은행, 부천 하나은행, 청주 KB국민은행이 나란히 5명으로 가장 많다. 용인 삼성생명 2명으로 가장 적었다.

안인영(하나은행), 박지현(우리은행) 등 5명은 생애 첫 역대 연봉에 진입했다.

6개 구단 선수들의 평균 연봉은 8128만원으로 지난 시즌 7691원보다 7% 올랐다. /뉴시스



전주천을 살립니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하천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km²,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슬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

전주천 환경개선 자원봉사자 모집

문의전화 063-288-9700

